

“태국 비구니 승단 복원 돕겠다”

‘웨삭데이 국제불교도회의’ 참가한 명성 스님 대표 모임서 한국비구니 알리고 지원 뜻 밝혀

비구니 승단에 대한 세계 불교도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국 비구니 승단이 활발한 활동을 벌이면서 이 같은 흐름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5월 7-10일 4일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웨삭데이(Wesak Day) 국제 불교도 회의’는 한국 비구니 승단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이런 분위기가 표출된 대회였다.

‘웨삭데이 국제 불교도 회의’는 1999년 유엔이 제정한 ‘부처님오신날’로, 태국은 3년 전부터 세계 최대의 승가대학이자 태국 최고의 대학 중 하나인 ‘마하출라 통킨 대학(MCU)’ 주관으로 웨삭데이 국제 불교도 회의를 열어 왔다.

특히 올해 행사는 웨삭 데이와 함께 태국 국왕 즉위 6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겸해 열려 어느 해 보다도 풍성했으며, 47개국 40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명성 스님은 8일 열린 각종 불교대표들의 주제발표 시간에 한국 비구니 승단에 대해 설명하면서 태국에서도 정식으로 비구니 계단을 설립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어 명성 스님은 행사 마지막 날인 10일 태국불교 종정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태국 비구니 계단 복원에 한국불교계가 도움을 주겠다는 의사

도 전달했다. 명성 스님은 이번 행사에 참석하기 전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만나 태국 불교계가 비구니계단을 설립할 경우 한국불교가 도와주어야 한다고 요청,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이번 행사에 참가했던 성정 스님(전국비구니회 섭외부장)은 “각 분과토론회에서도 태국에 비구니 승단이 설치돼야 한다거나, 비구와 비구니가 같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비구니 승단 설립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적지 않았다”며 “전국비구니회의 행사 자체평가에서도 한국 비구니계의 활동이 태국 등 소승불교 국가에서의 비구니 승단 설립에 대한 자극제가 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성정 스님은 또 “대회를 주관한 마하출라 통킨 대학 측에서 한국 비구니 스님들을 특별히 초청했다는 것은,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비구니 승단에 대해 관심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 아니겠느냐”며 태국불교계 일각에서 비구니 승단 설립과 관련한 긍정적인 시각이 있다고 전했다.

명성 스님을 비롯한 전국비구니회 스님들과 사찰음식으로 유명한 선재 스님, 노래하는 정음 스님 등 한국 비구니 스님들은 이번 대회기간 동안 주최 측으로부터 다른 나



태국에서 열린 웨삭데이 회의에 참석한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회장 명성 스님(맨 앞줄 가운데)과 전국비구니회 스님들이 방콕 명성센터에서 기념촬영한 모습. 사진제공=조계종전국비구니회

라 참가자들보다 환대를 받음으로써 한국 비구니계의 위상을 실감케 했다.

한국에서는 전국비구니회 스님들과 동국대 스님 및 관계자 등 모두 100여명이 이번 대회에 참가했다.

행사 셋째날인 9일 각종 불교단 대표단이 참석한 에머랄드 사원 방문 때 비구니로서는 명성 스님이 유일했으며, 속소 또한 최고급 호텔을 배정받음으로써 한국 비구니 승단에 대한 주최 측의 관심을 반영했다.

특히, 9일 저녁 명성센터에서 열린 대회 축하공연 행사에서 정음 스님이 음성공양으로 오프닝무대를 장식해 참가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았으며, 이번 행사가 진행된 명성센터 옆 박물관에 마련된 한국 불교 코너에서는 선재 스님이 사찰음식을 시연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불교를 세계종교의 중심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또 행사 3일째인 9일에는 사회·교육·문화 등 7개 분과로 나눠 주제발표 및 토론회가 진행됐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news.com



이병두와 함께 읽는 오늘의 세계불교

상좌부 불교국과 비구니

최근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한국 대표 종단인 조계종에서도 ‘태국 비구니계단의 복원’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높이 평가하고 종단 차원에서 지원을 약속하였다’고 한다. 일단 반갑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우리나라가 속한 대승 불교권과 달리 태국·미얀마 등의 상좌부 불교 국가에서는 비구니계단이 끊긴 지 1,000년에 가까운 긴 세월이 흘렀다.

부처님 제자로 출가하여 수행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여성들은 천주교의 수녀처럼 ‘출가 수행자와 재가 신자’ 중간에 위치한 애매한 신분이다.

특별한 몇 개 나라를 제외하고는 이제 ‘남녀평등’이 당연한 흐름이 될 정도로 세상이 변화하고 있는데, 아직 ‘세상의 당연한 흐름’이 되고 들어가 지 못하는 곳이 이들 상좌부 불교 국가

하는 종교이다’라든지 심지어 ‘부처님은 남녀 성차별주의자’라는 비판을 받는 근거로 쓰이기도 한다.

그러나 물이 끓어 수증기가 팽창하고 있는 밀폐된 그릇에 돌과구를 떨어 주지 않으면 결국 폭발하고 말듯이, 자연스럽게 솟아오르고 있는 ‘비구니 계단 복원’의 욕구와 ‘꿈’도 마냥 누르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부처님 당시 출가 비구니로서 깨달음을 이루었던 수많은 장로님 스님들처럼 나도 출가하여 진실한 부처님 제자가 되겠다’는 발심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깨달음과 열반’을 향한 그 구도열정을 누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실제로, 과거에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스리랑카에서는 변화가 일어나 비록 느린 속도이지만 ‘여성

보수 승단서 비구니 교단 인정은 하늘의 별따기

남녀평등 세계적 대세... 희생 최소화방안 찾아야

승단의 현실이다.

유대인 출신으로 다양한 삶을 경험하고 뒤늦게 비구니가 된 아야 케마(Aya Khema) 스님의 경우에도, 상좌부 불교를 공부하고 전도하는 수행자이지만 대만 비구니계단에서 계를 받고 스님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비구니 교단이 살아있는 한국이나 대만에 가서 계를 받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미얀마에서는 외국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출가하여 비구니 계를 받고 귀국한 다투 구나사리(Daw Gunasari) 스님이 정부 당국에 구속된 적이 있었고, 앞으로도 이런 위험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태국의 종교재판소에서는 ‘여성의 출가를 지원하는 비구니, 누가 되든 중장계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공표하기도 하였다. 상좌부 불교계에서는 이른바 <비구니 팔경계법>을 충실하게 따라야 한다’고 내세우며 밀어붙이는 것이다.

이런 태도는 ‘남녀평등’이 당연히 받아들여지고 있는 세계 추세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불교는 남녀를 차별

출가 수행자’를 인정하는 분위기로 돌아서고 있고 태국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 변화의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희생이 따를 것이다.

태국이나 미얀마의 보수 승단에서 ‘비구니 교단을 인정하는 것’은, 아마 자본가들이 ‘공산주의 혁명을 인정하는 것’보다도 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일지도 모른다. ‘태국 비구니 교단 복원’에 힘을 보태고 있는 우리 비구니계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을 깊이 살피고, ‘희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별 무리없이 차분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비구니 승단의 역량을 감안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속사회에서도 이제는 ‘희생’이 아니라 ‘개량’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 흐름은 불교계에서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상좌부 국가의 비구니 교단 복원’을 희망하고 추진·지원하는 분들에게도, ‘엄청난 희생’이 따르는 혁명적인 방법’이 아닌 ‘점진적 개량’의 방법’을 권고한다.

■ 자유기고가

베트남에 한국 사찰 세운다

육천 대성사, 양국 남녀 만남·신앙공간으로

우리 농촌 마을을 지나다보면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을 주선하는 결혼정보업체가 내건 현수막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근래 들어 베트남 여성과 한국인과의 국제결혼이 늘고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실제로 베트남에서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한국인과의 결혼을 원하는 여성들이 적지 않으며, 지난해에만도 한국 남성과의 결혼이 5800여건이나 된다. 하지만 베트남 여성을 상품으로 취급하는 등의 부작용도 뒤따르고 있다.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사찰이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선남 선녀 만남’을 주선해 인기를 끌고 있는 총부 육천 대성사(주지 혜철)가 그 주인공이다. 베트남 여성과의 바람직한 결혼문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베트남 여성들의 인권보호에도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성사는 베트남 현지에 대성사 본원을 건립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대성사 주지 혜철 스님은 본원 건립을 위해 지난 4월 베트남 호치민시를 방문해 세부사항을 점검하고, 오는 2008



혜철 스님이, 베트남 현지에서 찍은 한국·베트남 선남선녀와 함께 기념촬영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과의 건전한 만남을 주선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올바른 결혼문화를 만드는 데도 일조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 같은 계획의 일환으로 대성사는 베트남 여성들이 상담은 물론이고 법회에 참석해 수행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난 3월 사찰 내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하고 2명의 전담 직원을 채용했다.

혜철 스님은 “베트남을 방문해보니 예절을 중시하는 등 우리의 비슷한 점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양국 국민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면서 인격적으로 존중할 수 있는 결혼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043)732-5560

년까지 한국전통 건축양식의 사찰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라 베트남 종교국과 접촉을 계속하고 있다.

베트남은 인구의 60%가 불교도지만 한국 사찰은 호치민시에 소재한 관을 사담 한 곳뿐.

혜철 스님은 베트남에 한국 사찰이 건립될 경우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원하는 베트남 여성들의 신앙공간이자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명우 기자

수월관음도 가정의 가보로 인기

가정의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으로 점안불공까지 마쳐!

집안의 액운을 영원히 쫓고 만사형통되는 영험 중생의 무명의 어둠을 밝게 비취주는 수월관음도는 세상은동안 고통과 고뇌를 단절시키고 오는 생애 좋은 과보와 무량대복을 주고자하는 자비로운 영험의 불화이다.

수월관음도는 집안에 모시는 순간부터 영험이 나타나 모든소원을 성취하게 큰 스님들로 하여금 집안 식과 축원불공을 마친 영험의 불화로 집안에 모신지 100일도 안되어 수행생이 원하는 명문대학과, 사범고시등 각종시험에 합격하고, 사업장은 신비하리만큼 사업이 풀리고, 결혼문제로 고민하던 인연의 짝을 만나며, 후손을 잉태하고, 폐허가만 하던 재정이 승소하고, 경쟁에서 소생하고, 취업의 고민이 해결되고, 가정의 위기가 화폭으로 해결되는등 놀라운 영험이 나타나는 화제의 불화이다.

불화의 명장인 선성 金養植 화백에서 3년간 기도와 영험으로 그린 수월관음도는 100% 전연고본판 화지에 2도 판화와 베를린 육시를 사용하 수백년 이 흘러도 변색되지않고 최고급2단출표구로 거실

불자가정의 후손에게 물려줄 3대가보중 하나! 또는 사업장에 모시면 대단히 풍위가 있는 세계가 격찬한 영험의 불화이다.

불자가정의 영험의 3대가보중 하나인 수월관음도는 가정의 번영과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뒷면에 카필라 불광사의 보증서와 자자손은 후손에게 물려줄수있는 소장인원이 있다.

영험이 나타나는 임소문이 퍼지면서 서울 조계사 옆에있는 카필라 불광사에는 가보로 구입하는 분과 아들딸 자녀에게 한점씩 주기도 하고, 새집이사 선물로 구입하기도 하는데 지난번 KBS 역사스페셜 수월관음도 방영후 전화신청이 쇄하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특급택배로 보내주고있으며 점안불공을 마친 수월관음도를 받으신 목욕재제하고 정한수놓고, 삼배하면서 갖가지 소원기도 한다음 거실또는 사업장에 걸면 영험이 시작된다.

문의(02)741-4488 가격195,000원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세로88cm 가로58cm

왜! 금강저를 가지고 다녀야 하나?

참제도 물리치는 삼고금강저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분, 가정주부등 가정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영험의 수호신으로 운전석앞에 여성은 핸드백속에 학생은 가방속에 넣으면 지갑속 또는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있도록 순금처리하여 축원불공을 마치고 카필라불광사에서 전화로 판매하고있다.

1분אל도 모르는 현한세상, 납치, 강도, 강간, 유괴, 각종사고등 근심과 걱정속에 사는 현실이다. 운전하는 자녀, 딸자녀, 경찰관, 직장인, 학생,

삼제도 물리치는 삼고금강저

가정주부등 가정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영험의 수호신으로 운전석앞에 여성은 핸드백속에 학생은 가방속에 넣으면 지갑속 또는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있도록 순금처리하여 축원불공을 마치고 카필라불광사에서 전화로 판매하고있다.

가격 25,000원 문의(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옴마니반메홈 福지갑 출시

평생부자로사는 놀라운 팔길상의 신통력!

사랑하는 아내에게 부자의 선물!

존경하는분과 자녀에게 성공의 선물!



몸에 지니는 순간부터 부처님 불광으로 소원이 이뤄!

옴마니 반메홈, 육자대명왕진언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다림 산중에 계실 때 가난으로 얼빛고 고통속에 있는 중생과 병고로 시달리고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불광의 네방으로 옴마니반메홈 육자대명왕진언을 설하셨다.

그후 가난한 중생은 평생부자로 공덕을 쌓고 살았으며 병든자는 만기 어려울정도로 건강을 회복하였다. 불경에 입각해 법구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카필라 불광사에서 빨리 일어나라는 뜻에서 700일의 축원기도와 영험으로 제작된 옴마니반메홈 복지갑은 출시 30일만에 영험을 받은 분자들로부터 입소문을 통해 구입문의가 쇄하고 있으며 자녀들에게 하나씩물려주고 몇 개씩 구입하기도한다.

최고급 천연가죽에 은나노처리를 한 옴마니 반메홈복지갑은 일반지갑과는 비교될 수없게 제작했으며 지갑안면에는 음양의 조

화로 만사가 형통되는 ‘육자대명왕진언’을 넣고 지갑내부에는 건강장수의 팔길상 ‘반장’을 넣었으며, 동서남북의 돈을 모으고 가지고있는 돈이 헛되어 나가지않는 팔길상 ‘보병’도 넣었다. 옴마니 반메홈지갑을 여성이 지녔다 가정의 번영하고 건강하며 금전적 어려움이 해결되어 항상 풍요롭게하고 음양의 조화로 남편의 의도따라고 부부관계가 화해되는 비방의 영험이 나타나게 했다.

“카필라”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탄생하시고 왕세자를 하신 고대국가 이름이며 전화로 신성한데에 지갑사용하실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새벽 특별 축원 불공을 해드립니다. 고급케이스에 있어 선물로 품격이 있으며 여성용장지갑 95,000원 남성용중지갑 65,000원 전화로 신청하면 보내준다. 문의(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금강저의 영험

현한세상다쳐올 화를 미리 쫓는 수호신

